

HD현대

HD HYUNDAI MAGAZINE

2025

AUTUMN



HD HYUNDAI MAGAZINE 2025 AUTUMN

HD현대의 하루는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속도보다 앞선 기본,
성과보다 먼저인 약속.

멈춤의 용기
예방의 습관
서로를 살피는 문화가
현장을 바꿉니다.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고
예측하며
서로를 지킵니다.

함께 일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안전에 진심인
HD현대 임직원을 응원합니다.

HD현대 가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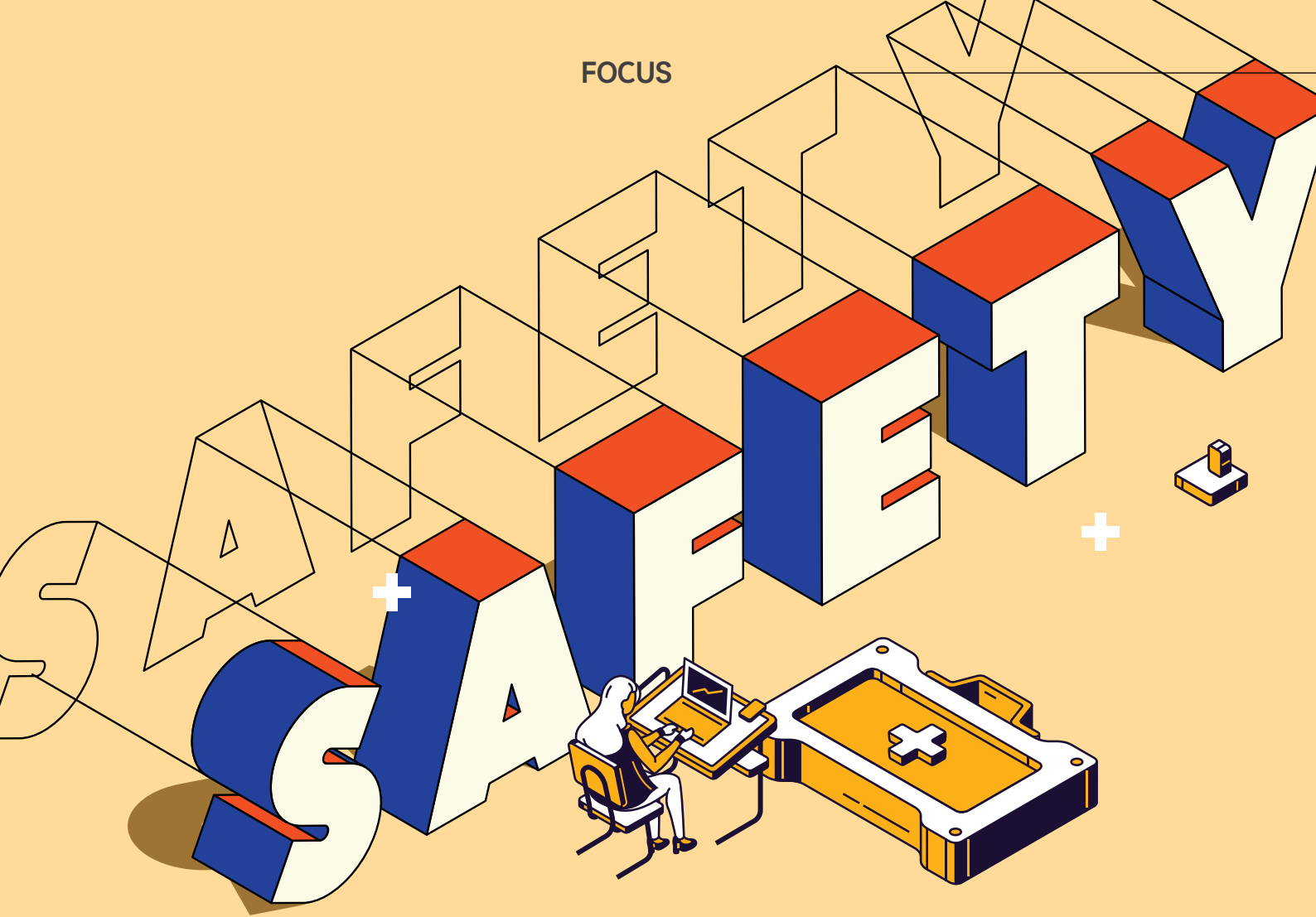
발행일 2025년 10월 20일

발행처 HD현대중공업 문화홍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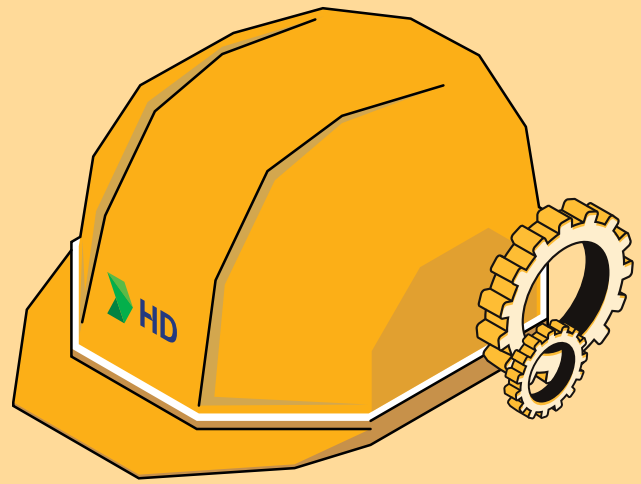
FOCUS	프로로그	04
	“사고 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우리의 힘”	
	HD하이라이트	08
	“안전이 일상이 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HD INSIDE	HD 돌보기	14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합병 MASGA, 한·미 조선협력 K2 전차 4차 양산용 엔진 수주 베트남에 ‘K-건설기계’ 노하우 전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2025 고용허가제 최우수 사업장 그룹사 소식	
	미래를 여는 HD	22
	쿨링 팬 작업복 / ‘디벨론 토탈 케어’	
	현장을 가다	24
	HD현대중공업 체계통합부 체계지원파트	
	현장스케치	28
	가스텍 2025	
	스타(★) 플레이어	30
	대한민국 명장 / 핵심가치실천인상 수상자	
	그날의 HD	36
	한국 잡월드에 멘토들이 떴다	
	HD 업(業)데이트	38
	HD현대일렉트릭	
	미라클 HD	40
	마스터피스 제작소	
	HD SNS ‘픽’	42
	직장인의 결심 시리즈 / 건설기계 라운지	
	우리네 이웃	44
	HD아트센터	
REFRESH	인사이트	46
	건강칼럼 / 마음컨설팅 / 트렌드코리아	
	사랑을 나누시다	52
	로컬 재발견	54
	가을의 대전	
	사우 참여마당	58
	아버지와 떠난 첫 해외여행 가을호 퀴즈	

FOCUS



안전모의 시작은 프란츠 카프카*에게서 비롯됐다.

* 프란츠 카프카(1883~1924)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소설가로, 소설 '심판', '변신'등을 집필했다. 특별한 이력으로는 1912년,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안전헬멧을 발명한 일로 메달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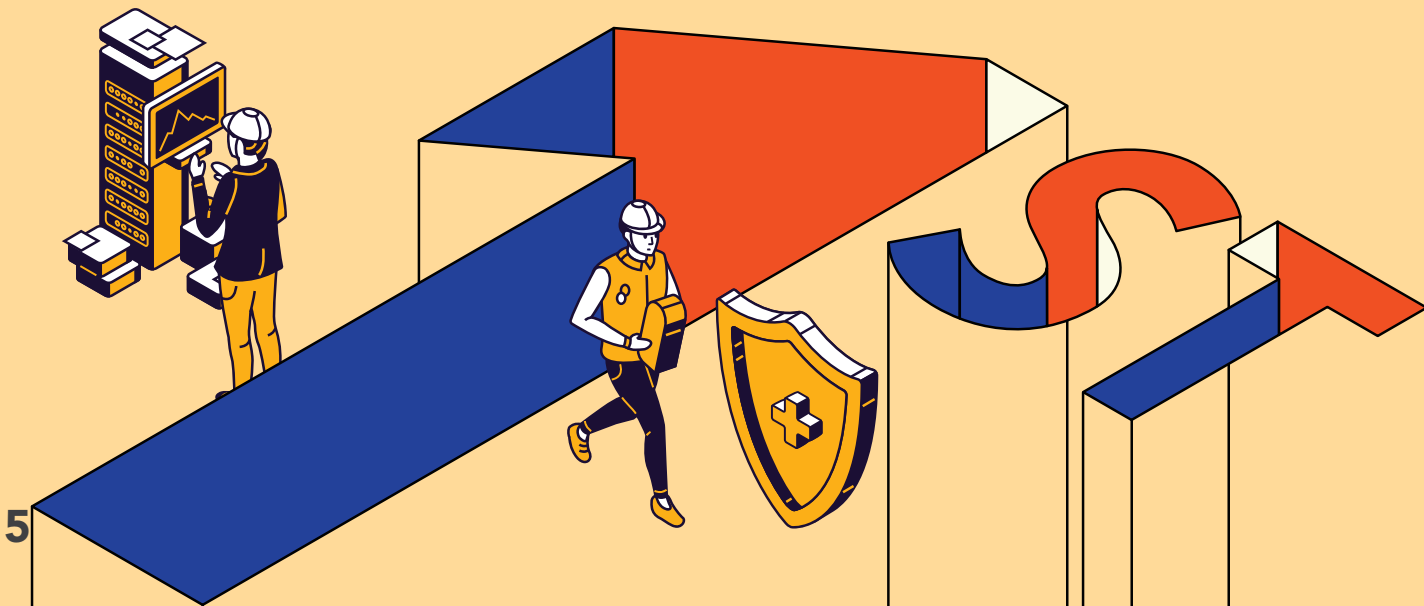


그는 근로자 상해보험 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산업용 안전모를 고안했다.
이후 1930년대 미국 후버댐과 금문교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안전모는 대규모 산업현장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강철보다 단단한 책임감이 머리를 감싸는 순간,
“작업장은 안전하다”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안전모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4년 7월 1일, 노동과학연구소에서 안전모 등 3종 보호구에 대한 공식적인
검사제도가 최초로 도입됐고, 2005년부터는 떨어짐이나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정도로 강력한 규정이 생긴 것도
고작 20여 년 전의 일이다.

짧은 역사지만, 안전모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사소해 보이는 장치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문화가 곧 기업과 사회의 미래를 지킨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작은 실천이 모여 모두의
행복을 만드는 길이다.



사고 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우리의 힘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얹혀 있어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HD현대에게 안전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일터와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의 철학이자 존재 이유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안전 활동은 때로 비용처럼 보인다. 설비를 확충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면 단기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선다. 생산차질, 납기 지연, 기업 이미지 추락, 이해관계자의 불신이 뒤따르고 재무적 손실은 막대하다. 반대로 사고 없는 일터는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발주처는 안정성을, 투자자는 지속 가능성을, 협력사는 상생을, 직원은 자부심과 안심을 느낀다.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사와 사회의 신뢰를 떠받치는 든든한 자산이다.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로 이어가야 할 때

HD현대는 IoT, AI, 웨어러블, 드론, CCTV 등 다양한 안전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왔다. 그러나 설치와 도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핵심은 기술을 현장에 어떻게 녹여내고 구체적 성과로 연결하느냐다.

호주의 한 광산업체는 드론과 LiDAR(레이저 기반 거리 측정 기술)을 활용해 지하 갱도를 3차원으로 정밀 매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붕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안전관리 방식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례는 '도입했다'가 아니라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HD현대 또한 기술 도입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제도 변화 속 HD현대가 나아가야 할 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던 안전관리 방식을 실질적 문화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위험성 평가 고도화, 아차사고 관리 강화, 스마트 안전장비 표준화와 함께 원·하청 공동 관리 체계 구축, 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특히 아차사고 관리는 재해 예방의 핵심이다. 모든 사례를 데이터화하고 협력사와 공유해야 한다. '보고하면 불이익'이 아니라 '보고하면 함께 개선'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또한 일 부 부서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사 표준 인프라가 돼야 한다. 정부는 반복 재해 기업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안전 선도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HD현대가 재해 제로를 실현하고 이를 ESG 성과와 연결한다면, 안전은 곧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자산이 된다.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완성되는 안전문화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첨단 기술을 도입해도,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안전을 단순한 규정 준수로 머물게 할지, 조직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리게 할지는 구성원의 태도와 문화에 달려 있다.

안전을 위한 참여와 소통도 필수다. 현장 작업자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때 안전은 종이 위 규정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제도가 된다. 노란봉투법으로 협력사 노동자의 참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안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협력사와 안전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또한, 안전은 학습과 공유를 통해 진화한다. 사고사례, 아차사고 경험, 해외 우수사례를 함께 학습할 때 안전은 조직의 언어가 된다. 교육은 시간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을 살아 있는 교실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안전은 우리의 철학이자 미래

안전은 단편적인 사고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일터를 남길지에 대한 약속이다. HD현대가 지향하는 안전은 규정 준수를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철학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회사와 동료를 지키며, 미래 세대까지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HD 현대가 새롭게 만들어 갈 안전문화, 제도, 그리고 일터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박달재 교수

- 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위원
- 현) 한국가스안전공사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
- 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 사고조사반 위원
- 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산업안전보건센터장
- 전) 한국안전학회 총무이사, 기획·사업부회장



안전이 일상이 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상의 행복, 그 당연한 순간을 지켜 주는 것.

안전은 의무이자 약속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HD현대 모든 계열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현장 곳곳의 잠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D현대

중대재해 제로를 향한 발걸음

HD현대 경영진이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을 살폈다.



일선에서 살피는 현장 경영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지난 7월 6일(일)부터 11일(금)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첫 방문지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는 현지 야드를 둘러보며 공정 진행 상황,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어 권오갑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마린솔루션 등 현지 법인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 전략과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는 HD현대베트남조선(HVS)에서 생산현장을 돌아보며 품질관리,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직접 점검했다. 한편 권오갑 회장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는 등 일선에서 현장을 살피는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9월 4일(목) 전남 영암 HD현대 삼호를 찾아 김재를 사장과 함께 주요 설비와 고위험 작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안전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조선 부문에 약 3조5천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선진 안전 시스템 구축, 설비 정비, 안전 교육 강화, 협력사 안전 지원 등 전사적인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경영을 지속할 것을 경영진에 당부했다.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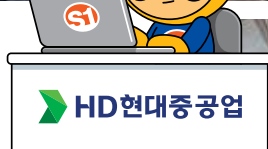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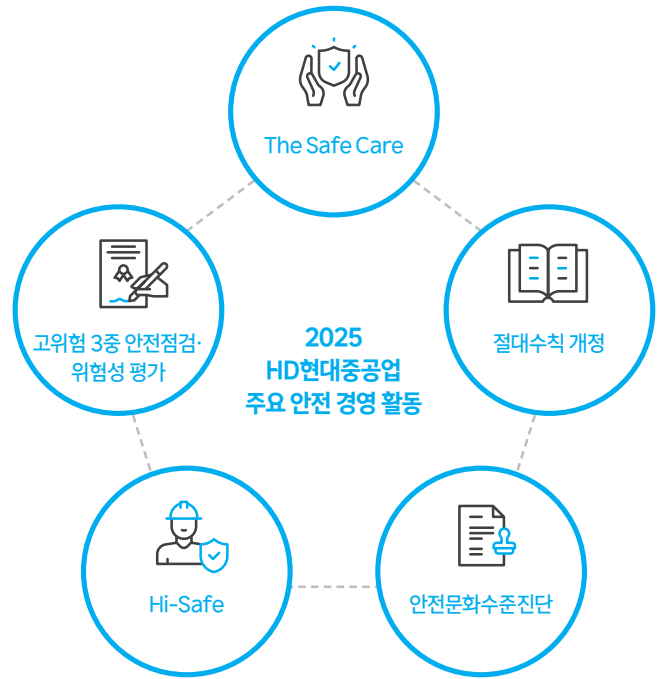
작은 위반을 방지해 대형 사고를 막는 것
HD현대중공업이 'The Safe Care' 제도를 통해
중대재해 제로인 안심 일터를 만든다.

The 안전한 관리 체계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은 안전보건 경영체계 '더 세이프 케어'를 전면 도입했다. '더 세이프 케어'는 과거 HD현대중공업과 업계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이를 '9대 절대불가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제정한 제도이다.

9대 절대불가사고는 ▲아르곤 질식 ▲빅도어 끼임 ▲잠수 익사 ▲트러스 떨어짐 ▲LOTO 이상온도 접촉 감전 ▲LPG선 화재 ▲판 흘러내림 ▲지붕 떨어짐 ▲무장발사관 끼임 등이다.

절대불가사고와 관련한 핵심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에 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점이 '더 세이프 케어'의 핵심이다. 현재 이 제도는 HD현대 전 그룹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안전이 문화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절대수칙을 개정하고 안전문화 수준 진단을 매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사 안전 개선활동인 하이세이프(Hi-Safe)를 통해 반복 발생하는 고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예방 중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전사 81개 부서가 직접 선정한 안전 실천 과제를 7개월간 수행했으며, 연말 열리는 경진대회에서 위험성·경제성·난이도를 평가해 우수작이 선정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안전문화가 전사에 확산·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한 손에 착, 안전수칙 포켓북

HD현대삼호가 아홉 가지 언어 안전 수칙 포켓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지킨다.

전 직원 대상 안전수칙 포켓북 배포

HD현대삼호는 안전의식 제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안전 가이드북을 전사에 제작·배포하며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임직원 및 사내협력사, 도급사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포켓북'이 지급됐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포켓북에는 ▲기본 안전수칙 ▲작업자 일반·절대 안전수칙 ▲생산현장 안전관리 세부 점검항목 등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사항이 담겼다. 포켓북은 가로 7cm, 세로 10cm의 손바닥 크기로, 휴대가 용이하며 현장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꺼내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9개 언어별 안전수칙·점검항목 등 수록

특히, 한국어를 비롯한 9개 언어로 제작돼 외국인 근로자도 무리없이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수칙 포켓북을 계기로 중대재해를 추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HD현대삼호는 HD한국조선해양 AIC(AI Center)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업무 지원 서비스인 '삼파고'를 개발했다. '삼파고'는 거대언어모델(LLM)과 연계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사투리, 조선 용어까지 잘 인식해 번역한다. 현재 이 서비스는 HD현대삼호 사내 메신저인 '탐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리랑카어로 제작된 포켓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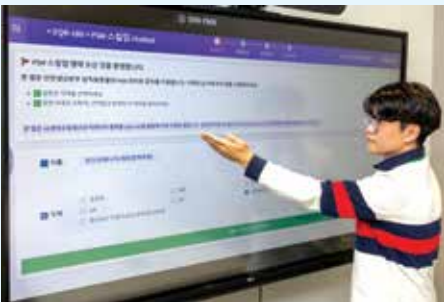
HD현대오일뱅크

안전도 스마트하게, 챗봇 시스템 도입

문제풀이부터 AI 기반 평가까지, HD현대오일뱅크는 챗봇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안전을 학습한다.

맞춤형 안전 학습을 위한 챗봇 도입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안전관리(PSM)와 고압가스안전관리(SMS)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PSM/SMS 스킬업 챗봇'을 구축



해, 임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PSM/SMS 스

킬업 챗봇'은 팔란티어 AI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기반으로, HD현대오일뱅크의 PSM 규정과 내부 데이터를 접목한 면담형 학습 챗봇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직무별로 필요한 공정안전관리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2024년 PSM 심사 면담 점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챗봇 이용해 문제풀이와 평가까지

최근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SMS) 관련 추가돼, 챗봇을 통해 SMS 문제 풀이 및 AI 기반 평가까지 가능해졌다. 사용자는 EP 시스템을 통해 챗봇에 접속한 후, SMS 항목을 선택해 문제를 풀고, AI가 자동으로 평가한 결과와 모범답안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0개의 문제 풀이 후에는 최종 결과 페이지를 통해 평균 점수 및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과 역량 점검이 가능하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도 PSM/SMS 스킬업 챗봇을 적극 활용해, 임직원의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

안전·보건 동반성장의 길

HD현대일렉트릭이 사내외 협력사를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까지 책임진다.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상생

HD현대일렉트릭이 사내·외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나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 현장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 협력회사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ESG 경영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돕는다.

모범적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

HD현대일렉트릭은 해당 사업에서 'ACE 전략(Attract · Communicate · Expand)'을 바탕으로 근로자 참여형 VOC 청취 플랫폼 구축, 상생협의체 운영,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협력사 재정지원 등 협력사 참여 확대와 소통, 맞춤형 지원을 포괄하는 상생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재해 건수가 줄고 위험성평가가 인증률이 높아지는 등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업계의 모범적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HD현대일렉트릭은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며 동반 성장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업장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프로그램으로 현장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중대재해 예방 점검 활동

건설기계 3사의 EHS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중대재해 예방 특별 점검 및 법규 준수 평가로 고중량 부품 취급 공정, 완성차, 물류차와 충돌 여지 등 현장의 중대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최신 정책 상황에 맞춰 현장 주요 사항을 평가하며 사업장의 법규 준수 실행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건설기계 3사가 상호 사업장을 바꿔서 수행하는 교차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점검하며 위험 요소를 더욱 철저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선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안전 관리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장 소통을 통한 안전 의식 고취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열쇠는 현장에 있다. 이에 EHS 조직은 숨어있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력사 협의회, CEO 생산 현장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장 직원들과 협력사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모범을 보인 조직이나 직원, 자율 안전 평가 및 위험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사에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캠페인과 안전 문화 동영상 경진대회, 작업별 중대재해 예방 관리 핵심 포인트 안내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안전한 현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교육의 힘

건설기계 부문은 안전보건 이론 교육부터 비상 대피 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실습 교육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현장 관리자들의 경우 안전 의식 및 수준 함양을 위해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비상대피훈련

화재, 누출,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부터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주변 방호, 응급 구호, 현장 지휘까지 전체적인 대피 과정을 익힌 후 반복 실습 훈련으로 진행된다.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서, 경찰서, 해군 등 인근 소방·의료 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심폐소생술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 사내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된 실습 모형이나 압박 속도와 깊이에 따라 자동으로 측정되는 시스템을 통해 이해도를 극대화한다. 2024년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원을 주변 동료 직원들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해 위급한 상황을 극복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체험교육장

올해 인천공장에 개관한 안전체험교육장은 맞춤형 체험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됐다. 4D VR, 안전 보호구 충격 체험, 줄걸이·크레인 체험, 감전 체험, 협착·물림 체험 등 10종의 안전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 교육장도 갖추고 있어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두 길이 만나 더 큰 미래로

글로벌 경쟁이 거세지고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HD현대의 핵심 사업인 조선과 건설기계 두 축에서 합병이 추진됐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각 사의 강점이 결집하며 만들어낼 시너지와 변화는 K-조선과 건설기계 산업 전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 × HD현대미포 양사 강점 결집, 글로벌 시장 새 기회 선점

HD한국조선해양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조선업 사업재편을 통한 K-조선 및 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주 확대에 나선다.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최종 의결했으며, 10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통

합 법인은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조기 상용화 ▲함정·특수선 등 방산 분야 경쟁력 확대 ▲배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 진입 가속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국내 최대 함정 건조 실적과 HD현대미포의 최적화된 도크·설비, 인적 역량이 결합하면서, 급성장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업도 더욱 체계화된다. 싱가포르에 설립될 투자법인은 HD현대 베트남조선과 HD현대비나(가칭) 등 해외 생산거점을 총괄해 신규 야드 발굴과 사업 협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HD현대는 경쟁력 있는 해외 야드를 활용해 벌크선과 탱커 등 중국 조선사

들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상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하는 한편,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HD현대건설기계 × HD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 'HD건설기계'

지난 7월 1일(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16일(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승인됐다. 'HD건설기계'라는 새 이름으로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과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법인 HD건설기계는 건설장비, 엔진, AM(After Market) 등 전 사업 영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해 2030년까지 매출 14.8조

원 이상을 달성, 글로벌 톱티어 건설기계 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미 조선 동맹, 새로운 장을 열다

HD현대가 한·미 조선 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마스가(MASGA)' 투자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美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까지 수주하며 글로벌
조선·방산 시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과 손잡고 미래 조선 협력 가속

HD현대가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에서 첫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8월 26일(한국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HD 현대는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버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마스가'의 첫 물꼬를 텄다.

주요 투자 분야는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AI 등 첨단조선기술 개발 등이다. HD 현대는 앵커 투자자이자 기술 자문사로서 투자 검토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서버리스 캐피탈은 투자 전력 수립과 관리 전반을, 한국산업은행은 투자자 참여구조 설계를 담당한다. 특히 이번 협력은 한·미 정상회담 후 조선산업을 매개로 한 양국 협력이 실질적으로 실행된 첫 사례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동맹국인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美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첫 수주

HD현대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조선·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히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지난 8월에는 美 해군 군수지원함 MRO(정기 정비) 사업 수주에도 성공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6일(수)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천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Regular Overhaul) 사업을 수주했다.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지난 2007년 취역했으며, 해군 출신으로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된 앨런 셰퍼드(Alan Shepard)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부터 HD현대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 프로펠러 클리닝과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한·미 조선 협력 타임라인

- 4월 • 미국 헌팅턴 잉걸스와 방산 협력 MOU 체결
- 6월 • 슈에스트 오포쇼어와 상선 파트너십 체결
- 8월 • 미 해군 7함대 소속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 수주
 - 서버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 추진



앨런 셰퍼드함

HD현대인프라코어

1천 500마력 국산 엔진의 저력, K2 전차 4차 양산용 엔진 수주

HD현대인프라코어가 방위사업청과 K2 전차용 엔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독자적인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K2 전차 엔진(DV27K)

독자 개발 1천 500마력 엔진으로 방산 경쟁력 강화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7월 방위사업청과 K2 전차 엔진 DV27K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엔진을 납품할 예정이다. K2 전차에 탑재되는 DV27K 엔진은 주요 방산국의 주력 전차 엔진과 동급 수준의 1천 500마력 출력으로 56톤급 K2 전차를 최대 시속 70km로 주행시킬 수 있다. 배기가스를 활용해 압축한 공기를 실린더 내부로 밀어 넣는 설계를 적용해 출력과 연소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최적화된 구조 설계를 통해 진동을 최소화하고 동력을 고르게 전달함으로써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K2 전차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으로 세계 무대서 주목

HD현대인프라코어는 기술력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동급의 고속·고출력 전차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전에 배치한 국가는 미국, 한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해 전차 엔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0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2014년 K2 전차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2019년부터 방위사업청에 K2 전차 엔진을 단독으로 공급해왔다. 이는 회사의 기술적 신뢰성과 공급 역량을 방산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김중수 엔진사업본부장은 “이번 K2 전차 엔진 수주는 우리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1천412억 원을 투자해 군산과 인천에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및 배터팩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에 착공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차 엔진 개발 및 수주 히스토리

- 2005** • 국방과학연구소와 1천500마력 엔진 개발 계약 체결
- 2007** • 군산 엔진 연구동에서 프로토타입 성능 시연 성공
- 2014** • K2 전차 엔진 DV27K 개발 완료
- 2015** • 현대로템과 K2 전차 2차 양산 엔진 공급 계약 체결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선정
- 2016** • 초도 양산 1호기 엔진 생산
- 2021** • 방위사업청과 K2 전차 3차 양산 엔진 공급 계약 체결
- 2022** • 현대로템과 폴란드 수출 전차용 엔진 공급 계약 체결
• 튀르키예 베메제와 알타이 전차 엔진 개발 계약 체결
- 2023** • 튀르키예 베메제와 알타이 전차 엔진 공급 계약 체결
*첫 단독 수출 성과
- 2025** • 방위사업청과 K2 전차 4차 양산 엔진 공급 계약 체결

HD현대건설기계

베트남에 K-건설기계 노하우 전수

HD현대건설기계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직업훈련 전문대학 'The Central College of Transport No.1(CCT1)'에서 '친환경·스마트 건설기계 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습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베트남 현지 수요가 높은 22톤급 굴착기 1대를 기증했다.



글로벌교육센터 정비 실습실



글로벌교육센터 홍보관

베트남 대학과 함께 건설기계 기술 인재 양성

이번 협약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인 'IBS-ESG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향후 5년간 CCT1에 ▲스마트 건설기계 장비 및 기자재 지원 ▲교육 커리큘럼 개발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대상 교육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분야 학생, 교직원, 정부관계자 및 현지 기술자 등 500여 명의 인력 양성이 기대된다. CCT1은 교육생 모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강사진의 신기술 교육과 교강사의 한국 파견을 추진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및 교육생 평가, 우수 인재 선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HD현대건설기계 AM/PS 담당 김병수 상무(왼쪽 세 번째)와 CCT1 조영 테 안 총장(왼쪽 다섯 번째)

HD현대건설기계는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 내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스마트 기술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강화되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충족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내 지속가능한 건설기계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교육센터 역량 개발 노하우 글로벌 전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베트남 신규 건설기계 시장은 정부의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연평균 4.35%의 성장률을 기록해 2029년까지 7,900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건설기계는 베트남에서 교육 및 산업 기반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며, 향후 베트남 내 사업 확장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까지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HD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는 지난 2006년 충북 음성에 설립됐으며, 글로벌 딜러 대상 서비스 기술 교육,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선발 및 훈련, 국내 협력사 및 임직원 교육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건설기계 산업의 고급 인력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4년 연속 '최우수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HD현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해법 선보여

HD현대가 지난 8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최신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정부의 '에너지 슈퍼워크' 프로그램과 연계돼 개최됐다. 특히 APEC·청정에너지·미션 이노베이션 등 국제 장관급 회의와 함께 열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HD현대에는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에너지 전환의 여정(Net Zero Energy Journey with HD HYUNDAI)'을 주제로, 신재생 전력의 생산-저장-송전-소비 전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에너지고속도로' 전시관을 선보였다.

신기술 공개에 관람객 이목 집중

이번 행사에는 그룹 에너지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 에너지솔루션, HD하이드로젠이 공동 참여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HD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절연유 변압기와 SF₆-Free GIS(육불화황 무가스 개폐장치), 전력망 안정화 핵심 장비인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충전기용 누전 차단기 등 차세대 전력기기를 공개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HJT(이종접합)·탠덤 셀을 전시했으며, 발전 효율을 끌어올린 645W급 모듈이 한국에너지공단 탄소인증제 1등급을 획득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HD하이드로젠은 청정수소 생산설비 SOEC(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와 친환경 발전설비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소개했다. 소음·매연이 거의 없어 도심 설치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HD하이드로젠은 2026년 하반기 한국형 SOFC를 양산할 계획이다.

HD현대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력을 집약적으로 소개하며, 글로벌 탈탄소 전환을 선도할 역량을 입증했다.



HD현대삼호

전국 최고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모범 기업 발돋움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인 송운산업이 2025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왼쪽부터 송운산업 아끄바르 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송운산업 손준원 부장

인사도 서툰던 그가 동료를 이끄는 조장으로

이날 송운산업의 최우수사업장 선정과 더불어, 최우수 외국인 근로자에도 송운산업 소속 우즈벡 출신의 아끄바르(27세) 씨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3년 7월 입국해 송운산업에 입사한 아끄바르 씨는 취부와 용접을 맡고 있는 만 2년 경력의 외국인 근로자다. 한국에 오기 위해 고용 허가제 한국어 시험과 기능 시험을 통과한 그였지만, 막상 들려오는 낯선 한국말과 생소한 작업 환경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끄바르 씨는 현장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회사 기술교육원의 훈련 및 기술 숙련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기술은 물론 한국의 언어와 문화 습득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만 2년 만에 작업기능평가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돼 조장으로 승진, 현장을 이끄는 책임자가 됐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사로도 선임돼 우즈벡 국적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아끄바르 씨는 “낯선 외국인이 아닌 동료, 직원으로써 나를 성장하게 해준 회사에 감사하다”면서 “용접으로 수많은 블록을 잇는 것처럼, 조선소의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로 이어져 서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 최고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모범 기업 발돋움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인 송운산업이 지난 8월 6일(수)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열린 ‘2025 EPS(Employment Permit System, 고용허가제) 콘퍼런스’에서 ‘2025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 사업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승현 송운산업 대표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 고용허가제는 사람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희망의 제도”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사람답게 일하고 역량을 인정받으며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운산업

2014년 HD현대삼호 전기 의장 파트 협력사로 개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



외국인 근로자 사내학습 지원



기량 평가로 동등하게 승진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국가별 문화교류 및 가족 초청행사등 실시



HD현대중공업

더 강력해진 K-이지스함 탄생, 다산정약용함 진수

HD현대중공업이 9월 17일(수) 울산 본사에서 8천200톤급 최첨단 이지스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km/h)의 속력을 낼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구축함이다. 기존 세종대왕급(7천600톤급)보다 한층 발전



된 이지스전투체계를 탑재해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으며, 통합 소나 체계 적용으로 잠수함 탐지 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나 수중 위협 대응력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요격 기능까지 갖춰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 기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수식을 마친 다산정약용함은 시운전과 최종 의장 작업을 거쳐 내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

타운홀 미팅, 구성원과 함께한 현실과 미래의 대화

HD현대오일뱅크에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산공장 과 GRC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에서 CEO 주관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다. 약 천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임직원이 회사의 향후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대표이사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됐다. 송명준 대표이사는 "상황을 직면하고, 희망을 함께 만

들어가지"는 메시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함께 나아가자는 의지를 전했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구성원들의 마음은 하나의 목표로 모였고, HD현대오일뱅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에 대한 기대 역시 더욱 커졌다.



HD현대일렉트릭

북미 시장 공략, 1천400억 원 규모 BESS 프로젝트 수주

HD현대일렉트릭이 북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계약 규모 약 1천400억 원의 미국 텍사스 200MWh급 '루틸 BESS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날씨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응해왔다. 2016년부터 1.6GWh 이상의 맞춤형 ESS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쌓아왔고, 최근에는 텍사스 현지 법인을 설립해 성장하는 북미 시장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앞으로도 전력기기와 ICT 솔루션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BESS 사업을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세계 최초 '신규 항로 최적화 결합 솔루션' 출시

HD현대마린솔루션은 글로벌 해상 기상 전문 기업인 일본의 웨더뉴스(WNI)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신규 항로 최적화 결합 솔루션 'OSR-OW'(Optimum Ship Routing X OceanWise)를 정식 출시했다. 세계 최초로 기상 서비스와 AI 연료 절감 기능을 결합한 이번 솔루션은 연료 절감과 안정성, 탄소 배출 저감 등 최적의 운항 경로를 제시하는 차세대 항해 지원 솔루션이다.

이번 결합 솔루션은 웨더뉴스의 40년 이상 쌓아온 안전 항로 서비스와 HD현대마린솔루션의 AI 기반 선박 성능 모델링 기술을 융합해 이러한 절감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최소 3%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양사는 실선 적용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OSR-OW의 적용 범위와 정확도를 강화하며, 더 많은 글로벌 선사들이 기상 데이터와 성능 최적화가 통합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법적 안전성 확보한 상업용 모듈, 美 시장 공략 가속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난 9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 'RE+ 2025'에 참가해 TOPCon, HJT, 탠덤 셀과 함께 주택용·상업용 TOPCon 모듈 및 고객 맞춤형 설계 모듈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제시했다.

아울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 기업 터닝포인트에너지(Turning Point Energy)와 약 36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상업용 모듈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TOPCon 모듈은 특허 실시권을 기반으로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2019년 미국 법인 설립 이후 영업망



을 꾸준히 확장해 온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와 계약 체결을 계기로 미국 시장, 특히 상업용 모듈 분야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

친환경·특수장비 신규 출시 및 1호기 인도

HD현대인프라코어는 디젤론 케이블식 전기 굴착기 4종 DX240LCE·DX320LCE·DX400LCE·DX550LCE를 선보이고, 1호기 고객 전달식을 개최했다. 환경부에서 다양한 크기의 전기 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최초로 30톤급에서 16m 시트 파일 작업이 가능한 38톤급 DX320LC-7 파일 드라이버와, 최대 13.8m 작업 높이와 시야 확보 기능으로 인양 작업에 최적화된 27톤급 월형 머티리얼 핸들러 DX250WMH-7도 신규 출시하며 특수장비 시장 공략에 나섰다.



HD현대삼호

올해 무더위는 쿨링 팬 작업복으로 시원하게 극복했어요

HD한국조선해양 시스템동역학연구실과 HD현대삼호 안전보건부가 공동 개발한
고성능 쿨링 팬 작업복이 HD현대의 작업현장을 시원하게 만들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 위한 신형 작업복 개발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삼호는 혹서기 현장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조선업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쿨링 팬 작업복을 개발하고, 2025년 하절기부터 현장 적용을 시작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 고온 현상이 심화되어 온열 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여름에는 경쟁사 두 곳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2건 발생하며, 조선업 현장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옥외작업과 밀폐 공간 작업이 혼재된 조선업 특성상, 폭염 환경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차세대 쿨링 팬 작업복 선보여

시중에 보급된 기존 쿨링 팬 자켓은 외부 공기를 단순히 내부로 유입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냉각 효율이 낮고 공기 유동 정체로 인해 작업복이 부풀거나 대기 중 오염물질이 피부에 직접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HD현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압력포켓과 유동가이드 설계를 적용, 안전벨트 착용 상태에서도 공기 흐름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요 발열 부위로 공기를 집중 공급해 기존 제품 대비 냉각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실험실 및 현장 조건 모두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이번에 개발된 고성능 쿨링 팬 작업복은 올해 HD현대삼호에 3천 벌이 우선 적용됐으며, 내년에는 HD현대중공업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장 근로자들은 “무더운 조선 현장에서 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회사와 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HD현대는 용접, 도장 등 고온·고강도 작업 환경을 고려한 고효율 쿨링 팬 작업복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 개발은 단순한 작업복 개선을 넘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 나아가 여름철 작업 효율 향상이라는 효과를 보여줬다. 향후에도 다양한 작업 조건에 최적화된 쿨링 팬 작업복 연구와 현장 중심의 안전 기술 개발을 지속해, 조선업 근로자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쿨링 팬 작업복 냉각성능
작업조건 비교결과

기존작업복

기존 쿨링 팬 작업복

3-Way 쿨링 팬 작업복

4-Way 쿨링 팬 작업복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건설기계 업계의 핵심 화두 업타임(Uptime)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첨단 ICT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장비 관리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 디벨론’(MY DEVELON)

HD현대인프라코어

첨단 기술 기반 ‘디벨론 토탈케어’ 론칭

HD현대인프라코어가 종합 서비스 프로그램 ‘디벨론 토탈케어 (DEVELON TOTALCARE)’를 론칭했다. 첨단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장비 가동률부터 유지 비용, 중고 판매 가치까지 장비 생애 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서비스 솔루션 ‘마이 디벨론(MY DEVELON)’을 통해 고객들은 정비 이력, 부품 교체 시기, 장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업타임 센터(Uptime Center)’에서는 마이 디벨론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측 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규 출시한 업타임루브(UptimeLube)는 유압작동유 분석을 통해 주요 부품의 마모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는 유압작동유를 추출해 전문 분석 회사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일이 소요되나, 업타임루브는 휴대용으로 제작돼 현장에서 신속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디벨론 토탈케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정부품 사용률을 제고하는 등 AM/PS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HD현대건설기계

‘현대 콤포트 케어’로 고객 만족 강화

HD현대건설기계는 모바일 및 PC로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관리할 수 있는 ICT 기술 기반 서비스 솔루션 ‘현대커넥트’와 ‘하이메이트(Hi-Mat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순회 점검 특화 서비스 프로그램인 ‘현대 콤포트 케어’를 론칭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에 나섰다.

현대 콤포트 케어는 고객이 작업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게(COMFORT) 작업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CARE)를 하겠다는 고객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국내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순회 점검 서비스에서 대상 고객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 항목 또한 강화됐다.

숙련된 서비스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순회 점검팀이 첨단 계측기를 탑재한 종합진단차량 및 AS 차량 등 25대와 함께 전국에 파견되며, 명예이사를 비롯해 신모델 구입 고객, 도서지역 고객 등 장비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 콤포트 케어

- 엔진오일, 유압유, 전장시스템 정밀 점검
- 냉각계통 부품 세척
- 예방 정비
- 소모품 교체
- 고객 대상 장비 관리 교육



명품 군함의 숨은 주역,

“HD현대중공업 특수선체계통합부 체계지원파트”



바다 위의 함정에게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

함정은 전투 체계와 탐지 및 센서, 그리고 무장체계가 완벽히 작동해야 비로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완벽을 책임지는 숨은 주역, 전투체계·무기 시운전 분야의 유일무이한 조직 체계지원파트를 만나봤다.

현장을 가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선박들

체계지원파트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체계통합부 체계1과에 속해있다. 임종득 파트장을 비롯한 파트원 8명은 함정에 탑재되는 무장·탐지 및 센서체계·전투체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도록 시험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3천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번 함인 '디에고 실랑' 함의 인도 출항과 필리핀 현지 함포 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천400톤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인 '라자 술라이만함' 프로젝트의 장비별 성능 시험을 마무리 하고 있다. 정조대왕함에 이어 최근에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 정약용함'을 본격 건조하고 있다.

함정의 핵심, 무기와 전투체계

함정을 사람에 비유하면 레이더는 눈, 소나는 귀, 전자전은 코, 무장체계는 손과 발이 될 것이고 전투체계는 곧 두뇌가 된다. 우수한 함정을 건조한다는 것은, 이러한 개별의 체계(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하나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체계지원파트는 함정 건조 기간 동안 각 체계의 개별 장비 성능 검증은 물론, 전투체계 통합 시험을 통해 각각의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히 작동하는지까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8명의 파트원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모든 함정의 초기 케이블 라인 점검부터 항해 시운전까지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장비가 동시에 연동돼야 하기 때문에 연동 과정에서의 작은 오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체계지원파트의 업무에 고도의 집중력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확도, 안전 그리고 팀워크

군함은 통신, 센서, 무기 시스템 등 모든 전자장비가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다. 커넥터가 불량할 경우 신호가 단절되고 오작동이 발생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다. 임종득 파트장은 "커넥터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단선과 접촉 불량이 발생한다"며 "이지스 함정 기준 약 3천600개에 달하는 커넥터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만들지 않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체계지원파트의 업무는 정확도뿐만 아니라 안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함정에 들어가는 장비에는 고속 선회, 개폐 장치 등 인체에 치명적인 전파를 방사하는 장비가 많다. 또 케이블 라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차단·표시 절차(LOTO, Lock Out Tag Out)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전 위험이 있다.

체계지원파트를 관리하는 장경민 책임은 “장비는 언제나 오작동 할 수 있다는 선배님의 말씀처럼 안전은 늘 최우선”이라며, 장비 작동 전 항상 사전 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 감시자 업무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계지원파트가 안전을 지키고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또다른 비결은 ‘팀워크’다. 파트원들은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즉시 공유한다. 올해 1월 신설된 팀이지만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모아 새로운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팀워크가 곧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빈틈을 보완하는 핵심이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파트의 매력”

수평적 협업과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는 체계지원파트의 자랑이자 활력소다. 월 1회 주기로 진행되는 파트 회식은 즐거운 저녁 식사 후, 언제나 팀을 나눠 스크린 야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임 파트장은 “늘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 소통방식을 가진 우리 파트원들”이 파트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뿜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임 파트장의 파트원 사랑도 만만치 않다. 그는 무더운 여름에도 현장 곳곳을 살피는 파트원들을 위해 활용해 파트 냉장고가 가득 차도록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사 둔다. 구슬땀 흘리며 고생하는 파트원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잘 쉬길 바란다는 그의 애정이 느껴진다.

최근에는 팀에 새로운 경사가 생겼다. 파트원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파트 막내, 이정건 기사가 새신랑이 되는 것이다. 이 기사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는 “선배님들의 경험과 젊은 동료들의 패기가 잘 어우러진 이 파트에서 근무하게 돼 늘 감사하다”며 쏟아지는 파트원들의 축하와 응원에 머쓱한 웃음을 터트렸다.

장 책임은 “이정건 기사를 제외하면 파트에 미혼자는 최일훈 기사 혼자이니 사보를 보신 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장난스레 말했다.

최고의 팀워크와 탄탄한 업무 역량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체계통합부 체계지원파트. 회사의 자랑인 함정이 넓은 해상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체계지원파트 8인의 더 큰 활약과 성장을 기대해 본다.



저, 11월에
새신랑 됩니다!

체계지원파트 이정건 기사

HD현대, 글로벌 가스 시장에 미래 기술 알리다!

지난 9월 9일(화)부터 나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관련 학회 및 전시회 Gastech Milan 2025가 개최됐다. HD현대는 차별화된 전시 콘셉트와 다양한 선박 모델로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친환경 기술과 AI가 적용된 지속가능한 가스선을 선보이며, 세계 가스 시장에 차세대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했던 그날의 열기를, 다시 한 번 느껴본다.

가스텍서 빛난 주요 전시 품목



178K급 친환경 LNG 운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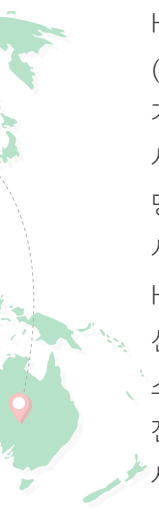


45K급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중형 가스운반선



축발전기





가스선의 비전 보여준 6개社 통합 부스

HD현대가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인 가스텍 (Gastech)에서 친환경·AI 기술이 적용된, 지속 가능한 가스선의 미래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1천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5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HD현대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상호 ▲HD현대마린솔루션 ▲HD현대일렉트릭 등 6개 계열사가 통합 부스를 마련하고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 첫날인 9월 9일(화), 전시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부스 가운데에 메인으로 전시된 일곱 척의 모델십이었다.

친환경·디지털 역량으로 선도 기업 도약 다짐

HD현대는 가스텍 기간 글로벌 선급으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고 주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총 36건의 공식 행사에 참여했다.

부스 현장에서도 주요 고객사들과의 면담이 연일 이어지며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HD현대는 차세대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며 글로벌 조선해양 시장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뛰어난 기술력 고스란히 담아낸 모델십

HD현대중공업은 ▲178K LNG 운반선 ▲174K LNG 운반선 ▲100K VLEC(초대형 에탄운반선) 등, 선수 거주구 배치와 풍력 보조 추진 장치 적용을 핵심으로 한 차세대 선박 세 척과, 세계 최대 규모의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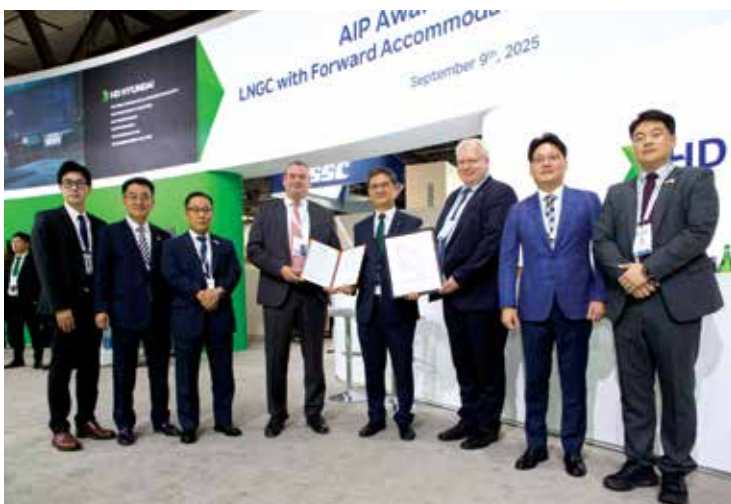
올드 파나마크스(Old Panamax) 선형인 90K VLGC(초대형 가스 운반선) 모델을 전시했다. HD현대미포는 ▲18K LNG 벙커링선 ▲45K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중형 가스선 두 척을 선보였으며,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솔루션을 적용한 FSRU 컨버전 모델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출품한 모델십들은 선원 거주 공간을 선수 쪽으로 배치해 상갑판 활용도를 높이고, 풍력 보조 추진 장치를 더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가 돋보였다. 이는 HD현대가 그리는 미래형 가스선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회사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깊이 각인시켰다.

기술 세미나에서 선보인 친환경 선박의 미래

가스텍 이틀째인 9월 10일(수), HD현대는 선사, 선급 등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HD현대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효율적인 미래형 가스선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HD현대의 친환경, AI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HD현대중공업 김현석 책임, HD현대미포 문부민 책임, HD한국조선해양 전지연 책임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른 미래형 선수거주구 LNGC 플랫폼을 제안하고, 선박운항보조를 위한 HD현대의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 등을 심도 있게 설명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HD현대의 기술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선명히 제시했다.



세대를 잇는 장인정신!! HD현대 두 명장의 탄생

현장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은 HD현대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가치는 지금도 현장에서 살아 숨 쉬며,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명장 고민철 기사와 유동성 기원

올해만 2명의 대한민국 명장 배출

지난 9월 9일(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HD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SMR/ITER 생산부)와 HD현대삼호 유동성 기원(외업정비팀)이 각각 판금제관 직종과 기계정비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뛰어난 기술과 경험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장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다. 올해는 총 11명의 명장이 선정됐는데, HD현대는 이 중 2명을 배출했다.

조선업계 최초 명장家の 탄생

HD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는 지난 2012년 입사해 플랜트설비생산부를 거쳐 현재 SMR·ITER 생산부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제작 생산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3차원 측정기기인 '레이저 트래커(Laser Tracker)'를 도입하고, 이를 제관 구조물의 품질 측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민철 기사의 이번 명장 선정은 대한민국 명장 역사상 최초로 부자(父子)가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린 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

고민철 기사의 부친인 고윤열 씨는 1978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해 40년간 조선·해양 철구조물 제작에 몸담았다. HD현대중공업 근무 당시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동해가스 설비 등 굵직한 현장을 두루 거쳤으며, 2004년 제관 직종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바 있다.

HD현대삼호 첫 명장 선정 영예

HD현대삼호도 회사 역사상 첫 대한민국 명장을 배출하며 큰 의미를 더했다.

HD현대삼호의 유동성 기원은 1994년 HD현대삼호의 모태인 한라중공업에 입사해 영암조선소 건설부터 참여하며 30년 넘게 회사와 고락을 같이 한 역사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정적인 기계설비 관리와 개선을 통해 공정 단축을 이끌어내 회전율을 크게 향상했으며, 특히 LNG운반선 등 육상건조공법으로 생산하는 선박을 진수하는 핵심 기계설비의 시스템을 체계화, 안착시킴으로써 매출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선박 육상 건조용 기계 장비 원천기술 관련 특허 8건, 기계정비 관련 서적 5권을 집필하는 등 학술 분야에서의 활동도 왕성하다. ▲2014년 국가품질명장 ▲2019년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 ▲2023년 전라남도명장에 선정되는 등 이미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숙련기술인으로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

미니인터뷰

🍎 처음 명장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자(父子) 명장'이라는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아버지께서도 '앞자리를 비워줄 테니 이제 스스로 헤쳐나가 보라'는 말씀으로 축하를 대신해 주셨는데,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명장이 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직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조선 산업을 만들기 위해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하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

🍎 30년 넘게 영암조선소와 함께하며 회사를 제 삶의 터전처럼 지켜온 시간이 이번 명장 선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기계설비 관리와 개선을 통해 공정을 단축하고 LNG운반선 육상건조공법의 시스템을 정착시킨 경험이 제 경력의 큰 자부심이었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명장'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계정비 분야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HD현대삼호 유동성 기원



행동으로 이어가는 미래,
2025 핵심가치 실천인상 수상 소감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 峨山 정주영 창업자 -

HD현대는 반기, 혹은 연간으로 HD현대의 네 가지 핵심가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인원을 선발해 '핵심가치 실천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세부 과업 중 자기주도적이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공적자들을 엄격히 선발하기 때문에, 핵심가치 실천인상은 진정한 도전과 헌신을 증명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뜻 깊은 상이다. 올해, 네 가지 핵심 가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각 사별 수상자들을 만나 보았다.





“VR 선박도장 시뮬레이터 개발”

HD한국조선해양 그린코팅연구과 신지향 책임연구원, 그린코팅연구과 손성모 책임연구원, 자동화연구실 최민규 책임연구원, 선행도장부 백승현 기원(HD 현대중공업 소속)

저희는 실제 도장 작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VR 기반 선박도장 시뮬레이터 교육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장 교육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 지원 기능을 탑재했고, 근로자들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교정하는 기능도 구축했습니다. 여러 부서와 동료들의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들에게 보탬이 되고, 걸맞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DM기반 조선용 용접 로봇 시스템 도입”

HD현대미포 디지털생산혁신센터 전재민 책임엔지니어, 오승훈 기사, 안은지 기사, 용연DM솔루션부 김재경 기사, 선각기술부 전재백 선임엔지니어

HD현대미포 용연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DM(디지털생산혁신) 기반의 ‘용접로봇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표준화 노력과 함께 외국인 사우들도 로봇 시스템과 자동화 캐리지 운용에 익숙해지면서 용접 결함도 줄고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됐습니다. 용연공장 내·외국인 사우들은 이번 생산혁신을 매개로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고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로봇시스템 도입을 주도한 저희로서 기술 변화와 더불어 동반성장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함정분야 최초 방산 원가관리체계 인증서 획득”

HD현대중공업 특수선원가관리부 고민호 책임매니저, 특수선디지털혁신팀 박찬욱 책임엔지니어, 엔진기계원가관리부 김효정 책임매니저, 특수선 원가관리부 엄영철 책임매니저

저희 팀은 함정분야 최초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함정분야는 사업규모가 크고 원가구조가 복잡해 인증 사례가 없어 제한된 시간 안에 시스템 개발과 인증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부서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존 인증업체들의 도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경영진과 각 유관부서들의 헌신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기에 이 영광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회사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선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따른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여”

HD현대삼호 총무부 김대진 사원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원조 세포로 혈액 생성의 근원적 역할을 합니다. 조혈모 이식은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면역결핍 등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치병을 앓던 한 20대 청년이 제가 올해 상반기 기증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고 현재는 퇴원해 통원 치료를 할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부듯했습니다. 제 잠깐의 수고로움이 다른 이에게 새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혈모세포가 필요하다면 제 작은 힘이나마 망설임 없이 이식에 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혁신적 기술 적용으로 대형사고 극복”

HD현대마린솔루션 스마트케어부문 스마트케어 인사이트과 박용열 책임매니저, 마린스마트케어부 박정현 책임매니저

지난해 LPG Cargo Hold 침수 사고로 Cargo Tank 부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머리를 맞댄 결과 ‘에어백을 활용한 리프팅’이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해 냈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였고 3개월 동안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기술 지원으로 조기 운항 재개를 이뤄냈습니다. 매년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는 AS현장이지만,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고 고객을 만족시켰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스마트케어 부문의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과 열정을 갖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HD현대중공업 품질 및 선체설계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제품 수주 확대 기반 마련”

HD현대일렉트릭 전력해외영업1부 박세은 책임매니저, 고압 차단기설계부 김윤태 책임엔지니어, 설치기술부 이창훈 매니저, 고압차단기개발부 구자영 책임엔지니어

당사가 자체 개발한 145kV 친환경 GIS의 초도 수주를 이루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는 유럽 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첫걸음이자 앞으로 이어질 많은 수주의 시작점이라 여겨집니다. 초도 수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영업부, 스위스연구소, 설계부, 개발부, 설치기술부 등 유관부서가 한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4월 울산공장 서명식까지 이어진 긴 여정이 이번 성과를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 된 팀워크로 유럽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고, HD현대일렉트릭의 이름이 세계 무대에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캠퍼스 선진화 공사 무재해 공로”

HD현대건설기계 안전팀 강성범 기장, 이종수 기원,
자산기획파트 장영기 기장, 손영진 책임매니저

스마트팩토리 선진화 공사는 기존 시설에서 생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철거부터 토목 공사, 신규 설비 구축까지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회사와 협력사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를 마치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활동을 파악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선제적인 사고 위험 관리에 온 신경을 쏟았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재해 없이 공장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선후배와 동료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언제나 신중히 업무에 임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MS(Telematics system) 단말기 교체 대응 기술 개발”

HD현대사이트솔루션 서비스플랫폼개발팀 김동은 책임연구원, HD현대인프라코어 PS팀 정재호 매니저, HD현대인프라코어 디지털솔루션팀 남동우 책임매니저

건설기계 원격 서비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TMS 단말기 1만여대의 공인 IP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단말기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 남아 있던 과거 설계 자료를 취합해서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섰고, 수차례에 걸친 테스트 끝에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무선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Over-the-Air) 기술을 활용한 원격 업데이트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그 결과 약 14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도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동료애를 다지는 소중한 경험을 남겼습니다.



“정량적 분석을 통한 시운전 공정 소음 저감”

HD현대인프라코어 생산기술팀 김정규 책임매니저, 조립생산팀 구문준 직장

엔진 시운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 결과 89dB 이상 고소음 공정이 7개에서 1개로 감소했고, 향후 신규 공정과 설비 도입 시 설계 단계에서 소음 예측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른 공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개선에 나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더 일찍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러한 개선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HD현대 진로 멘토링

문원중 학생들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HD현대-한국잡월드 진로 멘토링'에 문원중학교 학생 60명이 함께했다.
HD현대 대표 사업부문인 조선(HD한국조선해양), 건설기계(HD현대사이트솔루션), 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직원 3인이 직접 멘토로 나서 미래 세대를 위한 따뜻한 대화의 장을 열었다.

호기심 가득한 질문, 진심 어린 답변

지난 9월 5일(금) 오후 2시, 성남 한국잡월드 4층 메카이브 다목적 실은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득 찼다. 과학커뮤니케이터 열음(한창희,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연구소 이학박사)의 개괄 강연을 시작으로, HD현대 연구원 멘토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중학생들의 진로와 미래, 그리고 일상 속 이야기를 전했다.

토크쇼 시간에는 “과학·공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연구원으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추천하는 과목과 자격증” 등 사전 질문이 이어졌다. 멘토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며 학생들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왜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데 게임할 때만 빨리 갈까요?”, “10년 뒤 배의 모습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보편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등 중학생다운 발랄한 질문

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깊이 있는 질문까지 쏟아졌다. 멘토들은 경험과 전문성을 담아 성심껏 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에서만 보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실감이 났다”며 “진로 고민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날 멘토링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HD현대 멘토 3인 미니 인터뷰

HD한국조선해양 김도운 책임연구원(열시스템연구실)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학창시절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호기심과 열정 덕분에 저도 오히려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연구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또 학생들이 지금 경험하는 작은 일들이 앞으로 다양한 길을 열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들과의 인연, 하루하루의 노력이 훗날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내일의 나를 바꾸는 경험은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안상민 책임연구원(신소재연구팀)

“행사장으로 이동하면서 긴장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씩씩한 목소리에 금세 긴장이 풀렸습니다.

‘왜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데 게임할 때만 빨리 갈까요?’라는 질문에는 웃음이 났고, ‘재능이 없으면 어떡하죠?’ 같은 철학적인 질문에는 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나뉠 고민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좋은 어른들의 작은 가이드만 있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김태은 선임연구원(Hydrogen Energy 연구그룹)

“중학교 후배들과 수소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뒤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즈음에는 친환경에너지의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구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다양한 생각에서 큰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회사도 언젠가 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업으로 또 한번 성장했길 바랍니다. 이번 멘토링은 저에게도 책임감을 다시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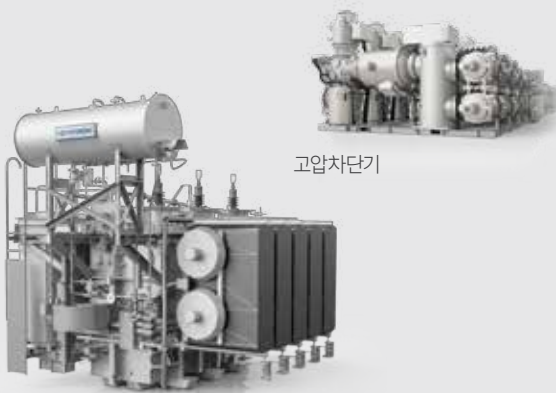
전기를 더 안전하게, 에너지를 더 스마트하게

도시의 불빛을 밝히는 가정과 상가에서부터
산업 현장의 플랜트, 친환경 선박과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과 산업이 이어지는 모든 현장에는 '전기'가 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생산·전송·분배·저장·관리하는 과정 곳곳에는 HD현대일렉트릭의 기술이 함께한다.
이제 HD현대일렉트릭의 핵심 제품군과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에너지 솔루션을 차례로 살펴보자.

1. 전력기기: 안정적인 전력망의 초석

전력을 멀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변압기와 고압차단기다.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초고압으로 바꿔 장거리 송전을 가능하게 하고, 다시 전압을 낮춰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고압차단기는 전력망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대규모 정전을 막는 핵심 장치다. HD현대일렉트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를 공급하며 글로벌 전력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초고압변압기

고압차단기

2. 배전기기: 전력을 안전하게 나누는 허브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보낸 전기를 실제 사용처에 맞게 분배하는 장치가 배전기기다. 중저압차단기는 빌딩이나 공장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류를 끊어 안전을 지킨다.

배전반은 건물과 산업설비 곳곳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분배 허브' 역할을 하며, 배전변압기는 전력을 수용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HD현대일렉트릭의 배전기기는 육상 플랜트뿐 아니라 선박에도 공급된다. 선박용 배전반과 배전변압기는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분배와 전압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글로벌 조선·해양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중저압차단기



배전반



배전변압기



울산 일렉트릭 야드

3. 회전기기: 에너지 전환의 중심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거나, 기계에너지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회전기기다.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어 펌프 등 다양한 산업 설비를 가동시키며, 발전기는 회전력을 이용해 다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육상 산업 현장은 물론, 해상 운항 환경에 최적화된 선박용 모터와 발전기를 공급하여 거친 바다 위에서도 끊임없는 추진력과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한다.



전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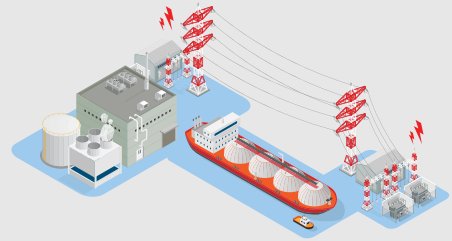


발전기

4. 에너지 솔루션: 미래를 준비하는 전력의 두뇌

전력 산업은 이제 단순한 생산과 공급을 넘어, 저장과 관리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변압기와 차단기에서 배전기기, 회전기기, 그리고 미래 에너지솔루션에 이르기까지,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의 모든 흐름을 책임지는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혁신을 이어가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HD현대일렉트릭 주요 에너지 솔루션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 공급해 에너지
관리에 일조

INTEGRICT

전력 설비와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에너지 솔루션

CEMS (Carbon &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사용량, 설비, 탄소 배출
현황을 종합 관리해 친환경적인
전력 운영 지원

HiPDS (High Performance Diagnosis System)

전력·배전 통합 예방진단시스템으로
주요 설비 상태 실시간 진단 및
체계적 관리로 최적의 유지보수
전략 설계에 일조

Reflore

리플로어

: 다시 피어나는 감각

예술이 된 또 하나의 시작

Drawing Amsa,
A Record of
Sensation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선과 색이 모여 한 사람의 꿈을 그려내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다.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의 '마스터피스제작소'는 장애 예술인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전문 화가로 성장하며, 스스로 서는 힘을 길러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가능성을 여는 교육의 힘

지난 2024년 문을 연 '마스터피스제작소'는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미술 교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기본반, 심화반, 전문가반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수업 속에서 참가자들은 선 긋기와 채색 같은 기초부터 다양한 기법을 익히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넓혀갔다. 지난해에는 42명의 장애인 화가가 교육에 참여했고, 세 차례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작품을 내놓았다. 그 과정에서 7명이 미술 분야에 취업하며 전문 화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전시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처음엔 낯설고 어렵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림이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전시장에서 피어난 자부심

올해는 45명이 새롭게 참여하며 더 풍성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지난 7월 노들섬 노들갤러리에서 열린 단체 전시는 그 결실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드로잉, 콜라주, 유화까지 다양한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고, 관람객들은 장애 화가들의 열정과 개성이 담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다.

참가 작가 민소윤 씨의 어머니는 “장애 예술인의 특성상 새롭고 다양한 작업을 배울 기회가 제한적인데, 마스터피스 제작소에 참여하면서 자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작업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가족에게도, 작가에게도 이 전시는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라 미래를 다시 그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장애 화가들의 성장을 돕고, 이들의 작품을 HD현대 굿즈로 제작해 임직원과 나누는 등 예술을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할 계획이다.





'최고민수야 고맙다'

최고민수 작가가 알려주는 사회초년생 재테크

"배당 주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세요. HD현대 배당 주잖아~"

HD현대 직원들이 경제 전문가 최고민수 작가를 만나,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을 전수받았다.

과연 이들은 사회초년생의 버킷리스트 '1억 모으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D현대의 복지제도 잘 활용하기!

'스튜디오 홀'에 업로드 된 '직장인의 결심'은 HD현대 직원의 일상과 관심을 공유하는 콘텐츠로, 최근에는 '사회초년생 1억 모으기'를 주제로 특별 게스트 최고민수 작가와 함께한 영상이 업로드 됐다. 최고민수 작가는 사회초년생인 HD현대 직장인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종잣돈 1억을 모으기 위한 실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HD현대 직원 세 명은 각자 가명(초대형 컨테이너선, 울트라 카젠, 디벨론)으로 소비 기록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다. 최고민수 작가는 세 명의 임직원에게 각각 2천만원 가량의 신용 대출(초대형 컨테이너선), 잦은 음주(울트라 카젠), 고가의 차량 및 텐트 구매(디벨론)를 지적하며, 충동소비가 아닌 균형잡힌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고민수 작가는 HD현대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식사 지원(아침·점심·저녁), 대출 이자 지원(주택자금), 본인 임신·출산 시 500만원의 축하금, 직장 어린이집(해피보트, 드림보트) 운영, 셔틀버스 통근 지원 등 HD현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언급했다.

ETF와 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비결

최고민수 작가는 ETF와 배당주 투자를 추천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ETF에 투자하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인용하며, 미국 ETF를 구매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어서 적절한 투자 시기는 VIX 지수(변동성 지수)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특히 VIX 지수 30 이상일 때(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포감이 큰 상태로 여겨짐) ETF를 구매하라는 꿀팁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배당주도 추천했다. 배당주 투자의 핵심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말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HD현대를 들었다. 'HD현대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 주잖아'라며 최근 시가총액 100조를 달성한 HD현대를 언급했다. 영상에 출연한 직원들은 이러한 팁을 바탕으로 절약과 함께 건설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건설기계,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건설기계 이야기,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유튜브 채널 '삽프리 필름'을 통해
지식 토크쇼 '건설기계 라운지'를 선보였다.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최신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아우르는
소통형 콘텐츠로 기획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비 가동시간을 최대화하는 '유지보수 시스템'

최근 삽프리필름에 디벨론 통합 솔루션 '마이 디벨론(MY DEVELON)'
내의 유지보수 시스템 기능을 주제로 한 영상이 업로드 됐다. 마이
디벨론의 유지보수 시스템은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고장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장비 가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건설기계는 고객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수다. 이에
삽프리필름은 영상을 통해 유지보수 시스템의 'A to Z'를 소개했다. 이날 전문가로 출연한 글로벌 PS팀 이병갑
팀장은 15년 이상 PS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지보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업타임 센터(Uptime
Center)와 현장 활용 사례를 세심하게 설명했다.

또한 영상에는 실제 고객이자 건설기계 유튜브로 활약 중인 '영웅건기'도 출연했다. 영웅건기는 마이 디벨론 사용
경험담을 공유하며, 특히 장비 위치 확인 기능과 고장 진단 알림 서비스를 가장 유용한 기능으로 꼽았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가상환경에서 안전하게 배운다 'VR 시뮬레이터'

두 번째 영상에서는 '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가 소개됐다.
가상환경에서 실제 장비와 같은 조건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구현돼, 위험 부담 없이 연습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VR 시뮬레이터 초기 제안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글로벌 PS팀 김현준

책임매니저는 책자 위주 교육이 갖는 한계를 짚으며, VR 시뮬레이터가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학습자에게
더욱 생생한 현장감과 함께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에는 건설기계 전문 유튜브인 리틀포크맨이 VR 시뮬레이터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현장감
넘치는 VR속 세계를 선보였다. 리틀포크맨은 실제 장비와 거의 유사하다며, 상하차 작업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 숙련 인력을 꾸준히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VR
시뮬레이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MUSICAL



REDBOOK

여인의 추억이 담긴
비밀스런 잡지, '레드북'

옥주현&아이비&지현우 등
막강 캐스팅으로
2025 연말을 책임질
뮤지컬 '레드북'을 만나보자.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정수로 평가받는 작품 뮤지컬 <레드북>이 올 크리스마스 시즌 울산을 찾는다. <레드북>은 2018년 초연 이후 감각적인 음악과 세련된 연출로 “한국 창작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 파혼 후 도시로 온 안나는 신사 브라운의 수상한 응원에 힘입어 소설을 쓰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이 실린 잡지 레드북은 사회적 비난과 위기에 맞닥뜨린다. 그런 안나의 용기와 사랑이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당차면서도 강인한 여성 '안나'役に 옥주현과 아이비, 로맨틱하고 진중한 신사 '브라운'役に 지현우가 합류해 풍성한 연기력으로 작품을 매력을 한층 높인다. 재치 있는 대사, 탄탄한 연기력, 깊이 있는 연출까지 해외 대형 뮤지컬 못지않은 완성도로 매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뮤지컬 '레드북'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드북

일시: 25.12.25(목)~27(토)

장소: HD아트센터 대공연장

관람등급: 14세 이상 관람가

가격정보: HD아트센터 홈페이지 참고
(HD현대 임직원 30~50% 할인)

연극

수상한 흥신소



“죽고 싶을 때 찾아가는
흥신소가 있다고?”

대학로 대표 스테디셀러 연극이 온다!

2007년 초연 이후 10년 넘게 대학로 무대를 지켜온 스테디셀러 연극 <수상한 흥신소>가 올가을 HD아트센터 무대를 찾는다. <수상한 흥신소>는 ‘죽고 싶다’는 사람들만을 손님으로 받는 기묘한 회사에서 벌어지는 한 편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트콤처럼 톡톡 튀는 대사와 배우들의 ‘과몰입 연기’는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준다. 그러나 이 연극의 묘미는 웃음에만 있지 않다. 극이 이어질수록 문득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스스로 되물게 만드는 깊은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죽고 싶은 사람만 온다지만 사실은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 ‘수상한 흥신소’. 올 가을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보자.



수상한 흥신소

일시: 25.10.30(목)~11.13(목)

장소: HD아트센터 소공연장

관람등급: 14세 이상 관람가

가격정보: 전석 25,000원

(HD현대 임직원 30% 할인)

우리 몸의 기능을 찌키는 법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것이 힘들거나, 등이나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척추측만증이나 척추후만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두 질환은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에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관리가 중요하다.

척추 건강, 왜 중요한가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며, 체중을 지탱하고 뇌에서 내려오는 척수신경을 보호한다. 척추가 건강하지 못하면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만성적인 통증은 물론이고 신경계와 순환기, 호흡기 등 여러 장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척추 변형이 키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정면에서 볼 때 옆으로 휘어진 상태를 말하며, 단순한 기울어짐이 아니라 척추 자체가 회전하면서 변형되는 3차원적인 질환이다. 반면 척추후만증은 옆에서 볼 때 정상보다 더 과도하게 뒤쪽으로 굽은 상태를 말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세 불균형과 통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폐활량 감소나 신경학적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발생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척추측만증은 주로 청소년기 특발성(원인 불명)으로 많이 발생하며, 노년층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다. 척추후만증은 선천적 원인, 노화, 골다공증, 압박골절, 수술 후 부작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두 질환 모두 외관상 어깨 높이의 비대칭, 몸통의 비틀림, 굽은 등 등이 보이며, 증상이 진행되면 허리 통증, 신경 압박으로 인한 하지 방사통, 심한 경우 호흡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체 진찰과 척추 방사선 검사(X-ray)가 요구되며, 필요시 MRI나 CT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장기 경도의 측만증은 추적 관찰하며, 진행이 빠르거나 그 각도가 심한 경우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적 치료가 진행된다. 성인 척추측만증·후만증은 증상이 경미하면 운동, 물리치료, 약물로 조절하고, 신경 증상이나 통증이 심할 경우 수술적 교정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

- 글 울산대학교병원 이주영교수(정형외과) -

올바른 척추를 위한 건강한 습관 3가지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장시간 앉아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척추의 변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바른 자세 유지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기대어 앉는 습관 들이기.

서 있을 때: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며,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지 않기.

2. 꾸준한 운동

코어 근육 강화: 복근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 스쿼트 등의 운동하기.

스트레칭: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경우,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3. 정기적인 검진

성장기 청소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척추 검진 받기. 조기 발견 시 보조기 착용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음!

노년층: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받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 글 유송희 실장(HD현대삼호 마음정원) -



심리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허점들이 바로 ‘프레임’이라 불리는 마음의 창에서 비롯됨을 증명합니다.

건물 안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보듯,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프레임에 의해 색채가 덧입혀지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인 동시에, 시야를 제한하는 검열관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저마다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생을 깨닫고, 더 성숙하고 관대한 ‘지혜로운 어른’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고도 여전히 자신만의 프레임 속에 갇혀,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한계를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그 한계와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지혜를 향한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독재 정권’에 비유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읽고 말하며 볼 수 있는지를 통제하듯, ‘자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프레임을 과도하게 쓰면, 우리는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믿지만, 정작 다른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은 자기중심성이 만든 착각일 뿐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이거나, ‘나는 네가 나를 아는 만큼만 너를 안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드러내는 한계 앞에서 겸허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참고도서_ 최인철 저 <프레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1.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은 현재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자 일방적인 희생의 시간으로 여기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즐기고 누릴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행복으로 가는 길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친구의 기념일을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끼 대충 때우자'는 태도로 소중한 식사를 홀대하지 말고,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온전히 즐기도록 해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2.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순간은 비교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 책 읽는 기쁨, 유쾌한 대화 같은 일들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교가 개입하는 순간 행복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외식을 자주 한다는데", "다른 집은 해외여행을 간다는데"와 같은 생각 속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 하고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 프레임에 갇히면 배움의 기쁨이나 도전 정신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점차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수평적 비교보다 과거의 나, 혹은 미래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남보다 잘하는 데서 오는 순간적인 만족보다, '최선의 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하세요.

3.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요즘 우리 사회는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프레임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디서 살고, 어디서 쇼핑하고,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 같은 '장소의 프레임'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라는 사실을. 행복 연구의 권위자인 에드 디너 교수와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222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측정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응답한 상위 10%와 가장 낮은 하위 10%의 특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돈·건강·운동·종교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든 요소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적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창을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이 허락한 가장 큰 축복이자 책임입니다.



무탈한 오늘 위에 쌓는 특별함

2025년을 설명하는 두 흐름은 '평범함의 재발견'과 '취향의 확장'이다.

불확실성과 피로가 일상화된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큰 성취나 과시적 행복을 좇지 않는다.

대신 무탈한 하루 속에서 안도와 의미를 찾고,

기본 위에 나만의 색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아보하와 토픽경제는 이러한 시대 감각을 잘 드러내는 키워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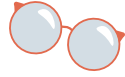
평범함 속의 회복력,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경험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1.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값지다는 인식은



불필요한 압박을 덜어내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평범함 속에서 찾는 만족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뜻한다. 특별한 사건이나 화려한 경험이 없어도, 무탈하게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태도를 말한다.

지난 몇 년간 사회는 '소확행' '작은 사치' 같은 개념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이야기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마저도 경쟁과 과시의 대상으로 변질되며 피로감을 안겼다.

이제 사람들은 거창한 목표나 과시 대신,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진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 출근하는 것, 퇴근 후 소박한 저녁을 즐기는 것, 주말에 별 탈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곧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박함이 주는 회복력

아보하는 단순한 생활 태도를 넘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회복력의 원천이 된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갈등, 과도한 경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거창한 성취만을 바라본다면 좌절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값지다'는 인식은 불필요한 압박을 덜어내고 심리적 안정감을 키운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몰입과 협업을 가능하게 만든다.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보듬는 분위기는 결국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 아보하는 화려하지 않아도 튼튼한, '지속 가능한 행복의 방식'을 보여주는 키워드다.



2. 토픽경제: 취향을 엮는 소비



토픽경제는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험 설계다.



기본 위에 더해지는 개성

토픽경제는 기본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엮어 완성하는 소비 흐름을 말한다. 피자에 원하는 토픽을 엮듯, 단순히 주어진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선택을 더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본체보다 부가 요소에 더 큰 관심과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단순 기능이 같아도, 원하는 색상이나 장식, 옵션이 있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감이 달라진다. 가방에 키링을 달거나, 신발에 장식을 더하는 '꾸미기' 문화, 구독 서비스에서 필요한 콘텐츠만 고르는 방식 등이 모두 토픽경제의 사례다. 이는 단순 취향의 반영을 넘어, '나만의 것'을 만드는 주체적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이다.

선택권이 만드는 경험의 가치

토픽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선택권이 곧 경험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단순한 사용을 넘어 자기만의 이야기를 엮는다. 작은 차이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는다.

기업의 입장에서 토픽경제는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 대량생산과 표준화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마음을 붙잡기 어렵다. 기본 구조는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되되, 사용자가 개입해 자신만의 선택을 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 토픽경제는 단순히 '부가 요소의 선택'이 아니라,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험 설계다. 이는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조직 운영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참고도서 _ <트렌드 코리아 2025>

66 우리 딸 과자 원 없이 99 사주고 싶어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만 알았다.
 카자흐스탄을 떠나 울산에 자리 잡은 도스 씨(가명, 51세)와 다나 씨(가명, 38세),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 티무르(가명, 15세)와 아야(가명, 4세).
 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얼마 가지 않아 도스 씨의 병마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병마와 생활고의 벽을 넘기 위해, 네 가족은 오늘도 희망을 안고 하루를 시작한다.

울산에서 새로운 시작

카자흐스탄에서 생활하던 도시 씨네 가족은 2022년 말, 다나 씨에게 닥친 신변의 위협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 다나 씨와 도스 씨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곳에서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산으로 와 자리를 잡게 됐다. 친절한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티무르와 아야를 교육 기관에 보내고, 운 좋게 취업도 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엔 무릎에 누워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다. 쑥쑥 자라는 티무르, 아야를 보는 것이 두 사람의 행복이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

2025년 3월, 예기치 않은 불행이 도스 씨네 가족을 덮쳤다. 평소처럼 집에서 쉬던 중 도스 씨는 숨이 차고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다나 씨는 구급대원에게 도스 씨의 증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 119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진 남편을 직접 간호했다.

도스 씨의 정신이 조금 돌아오고 난 후에야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갈 수 있었다.

병원은 두 사람에게 급성 신부전, 울혈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도스 씨에게 주어진 치료 방법은 이식밖에 없었다. 병원비를 내기도 빠듯한 살림에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엄마, 아내, 그리고 가장

병세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도스 씨를 대신해, 다나 씨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열심히 일하고 해질녘 돌아오면, 온종일 엄마를 기다린 아이에게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다.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도스 씨는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는 다나 씨의 손이 그저 마음이 아프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탓에 일자리는 한정적이고, 소득도 높지 않다. 두세 달에 한번 가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만 해도 120만 원. 매달 내는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 티무르와 아야를 위한 간식이나 새 옷은 언제나 가장 후순위다. 과자 한 봉지 웃으며 사 줄 수 없는 현실에 다나 씨는 말간 아야의 눈을 보며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햇살 같은 두 남매

다나 씨와 도스 씨의 유일한 행복은 사이좋은 남매 티무르와 아야를 보는 것이다. 열다섯 살 남자아이인 티무르는 친구와 노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한다. 네 살배기 공주님 아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다나 씨의 퇴근이 늦어지면 티무르가 아야를 살뜰히 챙겨준다. 몸이 좋지 않은 도스 씨도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슈퍼맨이 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티무르와 남자대 남자로서 상담을 해 주거나, 아야의 부러진 장난감을 테이프로 뚝뚝 고쳐 준다. “아빠 최고!”라는 자녀의 말을 들으면 언제 아팠냐는 듯 도스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엄마는 할 수 있어

다나 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인척도, 지인도 없다. 최근 도스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잠시 일을 쉬게 되었을 때는 생활비 걱정에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기도 했다. 다시 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매달 부족한 생활비에 가족들 식비부터 아껴야하는 현실에 다나 씨는 숨이 막혀온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는 다나 씨에게 “엄마는 할 수 있어!”라며 아야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여정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행복이 올 것이라 믿으며 다나 씨는 오늘도 씩씩하게 문밖을 나선다.



노잼 도시에서 가을의 도시로,

대전의 변신

- 글 & 사진 여행작가 봄비(김혜민) -

한때 '노잼 도시'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던 대전.
그러나 이젠 '빵의 도시' 또는 '가을의 도시'라 당당히 명함을 내밀고 있다.
성심당이 앞장서고, 장태산 메타세쿼이아 숲이 뒤를 받쳤다.
도심에서 숲길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만나는 대전의 가을은, 한층 더 깊고
특별하게 다가올 것이다.



장태산 자연휴양림

장태산 메타세쿼이아길, 붉게 물드는 숲길

이제는 버섯이 대전의 가을을 대표하는 명소가 손꼽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 그러나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집념이었다. 1973년, 임창봉 선생이 건설 사업을 접고 전 재산을 털어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2년 대전시가 인수하면서, 2006년부터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었다. 입장료는 물론 주차비도 없어 부담 없이 찾기 좋다. 숲과 가장 가까운 제4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따라 전망대에 오르면, 약 15분 뒤 눈앞에 장태산의 상징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아찔한 바위 위에 선 사람, 그리고 그 너머로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숲.

“이곳이 바로 장태산이다.”

그 한 장면이 장태산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안전장치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포토존이었지만,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데크와 안전망이 설치되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가을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이제, ‘줄 서기 싫다’는 분들을 위한 장태산의 또 다른 즐길 거리를 소개한다. 숲속에 자리한 높이 10~16m의 데크길을 따라 약 196m를 걸어가면, 어느새 내 몸도 붉게 물드는 듯한 기분이 든다. 마치 숲을 헤엄치는 다람쥐가 된 듯하다. 그 길 끝에는 높이 27m의 나선형 스카이라워가 우뚝 서 있다. 빙글빙글 올라갈 때마다 시야가 달라지고, 걸음을 옮길수록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울창한 숲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래, 바로 이 풍경이지.”



위치: 대전 서구 장안로 461

입장료, 주차료: 무료

상소동 산림욕장, 한국의 앙코르와트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차로 40분. 대전 동구 산내로에 자리한 상소동 산림욕장은 단풍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돌탑’이다. 오토캠핑장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조그마한 돌탑이 하나둘 눈에 띈다. 사방댐과 메타세쿼이아길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마치 비행기 타지 않고도 앙코르와트에 도착한 듯한 착각이 든다. 산림욕장 곳곳에 조성된 400여 개의 크고 작은 돌탑 때문이다.

그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겨울 농한기에 시간을 허비하기 싫었던 마을 주민 이덕상 씨는 무려 7년 동안 마을 뒤편에 성을 쌓았다. 그 성은 1971년 홍수 때 산사태를 막아 마을을 지켜냈고,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후에도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돌탑을 세웠는데, 그중



17기의 '희망의 탑'은 '한국의 앙코르와트'라 불릴 만큼 이 새로운 풍경을 자랑한다.

가을이면 붉고 노란 단풍 사이로 우뚝 선 돌탑이 장관을 이룬다. 돌탑 곁에는 돌로 쌓아 올린 계단식 사방댐도 자리하고 있는데,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가을빛에 물들어 더욱 빛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지만, 이곳에서는 티끌 모아 '돌탑'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위치: 대전 동구 산내로 714

입장료, 주차료: 무료

대청호 명상정원, 멈추는 순간 명상이 되는 곳

상소동 산림욕장에서 차로 25분. 이번에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절로 사색에 잠기게 되는 공간, 대청호 명상정원에 도착했다.

"대청호가 인공호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완공과 함께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4천세대, 86개의 마을이 호수 아래로 사라졌다.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져야 했던 수몰민들의 아픔이 푸른 물결 속에 고스란히 잠긴 셈이다. 둘레길만 해도 총 80km에 이르니, 인공호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다.

여러 코스 가운데 명상정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누구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주차장에서 300m에서 700m 남짓만 걸



대청호 정자

으면 도달할 수 있는 명상정원은 나무를 피해 조성된 데크길 덕분에 자연 속에 온전히 안긴 듯한 기분을 준다. 둘째, 대청호 수위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홀로 섬까지 걸어갈 수 있고, 수위가 높으면 호수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바라볼 수 있다. 같은 자리에서 늘 다른 풍경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

명상정원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2005년 권상우·김희선 주연의 MBC 드라마 '슬픈 연가', 영화 '7년의 밤'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정원 곳곳에는 흰 거위털이 흩어져 있는데, 운이 좋으면 실제 거위와 함께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가을빛으로 물드는 계절, 대청호 명상정원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호수를 바라보며 '물멍'에 잠겨보는 것도 좋겠다.



위치: 대전 동구 충동 680 (주차는 명상정원한터 공영주차장)

입장료, 주차료: 무료



대청호

함께 들르면 좋은 곳



•유성온천공원 족욕 체험장

국화 향기 가득한 공원에서 무료 족욕 체험을 즐기며 여행의 피로를 씻어내는 힐링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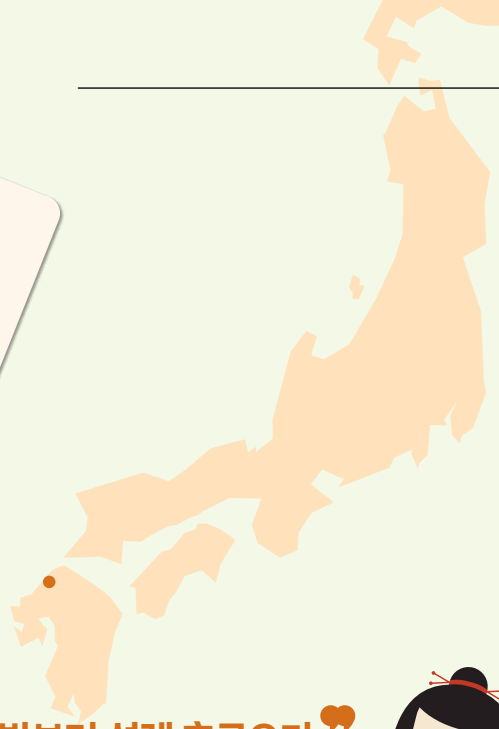
대전 유성구 봉명동 / 매일 07:00~22:00



•우암사적공원 남간정사

우암 송시열의 숨결이 깃든 정자, 가을 단풍 속에서 고즈넉한 선비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명소.

대전 동구 가양동 / 매일 05:00~21:00



출발부터 설렌 후쿠오카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의 해외여행에 공항에서부터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 후쿠오카에 도착해 '나카스 강변', '난조인 절' 등 관광명소를 부지런히 다니고, 유명한 맛집에서 음식을 드시며 아버지는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함께 여행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아들과 둘이서만 오니까 색다르고 참 좋다"는 말씀에 괜스레 마음이 따스해지며 간지러워졌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서로 사이좋게 사진도 찍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며 2박 3일은 아주 빠르게 흘러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비록 짧은 여행이었지만, 귀국하는 날 아버지께서 "다음에도 둘이서 여행가자"며 즐거웠다고 말씀해 주시니 피곤함이 녹고 무척 부듯해졌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항상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일 해오신 아버지께 좋은 추억을 선물해 드린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다.

평소 아버지와 서먹서먹해 부자간 거리를 좁히고 싶은 사우들에게, '아버지와 둘만의 여행'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오늘도 힘내시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 글 HD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김도윤 선임매니저 -



아버지와 함께 떠난 첫! 해외여행

2025년 초,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 고민하다가 언젠가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둘이서 여행 한 번 갔다오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여동생과 함께 종종 여행을 다니셨고, 그 기억들이 좋아내게 해 주신 말씀 같았다.

나 역시 아버지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아버지와 단 둘이 여행을 떠나보자!" 오랜 세월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해 오시던 아버지와 둘만의 여행을 떠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다짐하며 나는 하기 휴가기간, 2박 3일로 후쿠오카를 가게 됐다.



가을호 QUIZ

각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QUIZ

1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 해결과 중대재해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체계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국내 최대 건설기계 기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3

HD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와 HD현대삼호 유동성 기원이 대한민국 '●●●'에 선정돼 기술력과 장인정신을 인정받았다.

※ 답안 제출 시 순서대로 3가지 답안 모두 기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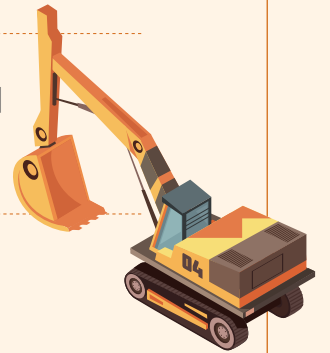
지난 호 정답

① 히어로데이 ② VR ③ MADEX

퀴즈 응모 방법

퀴즈의 정답을 11월 28일(금)까지 QR코드(또는 하단 링크) 접속 후 작성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uHPXEQaQVRdVMAnU7>

※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당첨된 사우에게 상품 수령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2025년 여름호 퀴즈 당첨자 선정

치킨 기프티콘(2만원 상당)

이용삼 HD현대중공업 도장1부
양도연 HD현대미포 조달1부
최준영 HD현대사이트솔루션 제관구매팀
김학성 HD현대중공업 기계의장부
박창우 HD현대건설기계 품질보증팀
이재진 HD현대이엔티 상호검사부
최윤영 해강이엔지
임종훈 HD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개발부
김낙호 HD현대사이트솔루션 컴포넌트품질경영팀
곽명준 HD현대인프라코어 전장설계팀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

윤한나 HD현대사이트솔루션 기술경영팀
박연진 HD현대로보틱스 로봇영업3팀
강병주 HD현대중공업 의장시스템생산부
이정아 HD한국조선해양 원자재구매부
김도연 HD현대인프라코어 글로벌생산운영팀
손대곤 HD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신소라 HD한국조선해양 구매조달부
유광욱 HD현대중공업 설계플랫폼혁신부
한상현 HD현대건설기계 제품성능시험팀
임지선 HD한국조선해양 라이프팀

김영민 HD현대인프라코어 OEM영업팀
김준만 HD현대삼호 가공부
김승욱 HD현대미포 원가관리부
맹은규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산업차량AM지원팀
정선민 HD현대이엔티 사업기획부
이정아 HD한국조선해양 원자재구매부
박창원 HD현대삼호 도장1부
이종훈 HD현대삼호 기장설계부
오현택 (주)조은기업
윤채원 HD현대중공업 SMR/ITER생산부

KORMARINE 2025

International Maritime & Energy Exhibition

HD현대의 기술로 내일의 세상을 만듭니다

기간 10월 21일(화) ~ 24일(금)

장소 부산 벡스코

※ HD현대관: 제 1전시장 2F11 구역

